

**종합**

# 광주·전남 새 단체장들 인수인계 착수

## 전문가·교수 참여 인수위 본격 가동 사무실비·인건비 등 당선자측 부담

6·2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뀐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다음달 1일 새 단체장의 취임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수인계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 취임하게 될 당선자들도 이번 주 안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이 참여하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인수인계는 당선자 측에서 구성하는 인수위원회 또는 인수팀과, 이를 지원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지원단이 맡게 된다.

각 지자체의 인수지원원은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인수인계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수인계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 인수지원단은 당선자 측에 업무과와 지원과 사무실·집기 임대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무실 운영비나 인수위원회의 인건비는 당선자 측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다. 사무실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내에 두도록 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각 당선자들은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광주시 남구 방림동 기존 국회의원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인수위 가동에

공보실과 행정실은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의 명단은 7일 발표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자의 공약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광역경제권 사업 등 추가 과제 발굴 ▲공직자들이 '창조의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전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감시시스템 마련 ▲시민의 역할을 결집하는 '참여와 소통의 시민정부' 구성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최영호 남구청장 당선자와 민형배 광산구청 당선자도 지난 3일부터 해당 지자체와 인수인계 협의에 들어갔다.

남구청 관계자는 "당선자가 인수인계 절차를 최소화하고 검소하게 취임을 준비하도록 당부하고 있어 취임 전까지 현안이나 통계 등 필요한 자료만 그때그때 제공하는 정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안순일 현 교육감의 임기가 5개월 가량 남아 있어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구성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3일부터 인수인계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내일 교수평의회 의장·10일 직원노조 위원장 선거

# 조선대 발전 분수령되나

## 옛 경영진 이사장·총장 퇴임 요구 속 주목

조선대 옛 경영진이 강현욱 이사장과 전호중 총장의 퇴임 등을 요구하며 현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교수평의회 의장과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임박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올 초 조선대 이사회에 옛 경영진 추천 인사 3명이 포함된 이후 처리되던 점에서 조선대가 향후 안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혼란에 휩싸일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옛 경영진들은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대다수를 연구 부정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맹공격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추천한 인사들도 이사장 재선출을 주장하는 등 학교 내 세력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6월 조선대에 따르면 교수평의회는 8일 총회를 갖고 임기 2년의 신임 의장을 선출한다. 또 직원노조는 오는 10일 임기 3년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조선대 교수평의회는 옛 경영진을 물러나게 한 1988년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 민주화운동 지지 양심인을 한 교수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으며, 직원노조도 당시 조직돼 지난 20여년 동안 정상화 운동을 벌여온 핵심 세력이다.

특히 교수평의회 의장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대표를 맡아 정이사 선임 및 총장선출 등 학교의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왔다.

교수평의회 의장 후보로는 김수중

인문과학대 교수가 '조선대 설립동지회 설립정신 재구현'과 '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단독 입후보했다.

김 후보는 재직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하지만 시점이 학기말인데 단독 출마는 점에서 관심이 미미하고, 일각에서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마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조 위원장에는 최병철·이재규·조관익(기호순)씨 등 3명이 출마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조선대의 한 직장노조원은 "이번 양대 선거는 내년에 있을 총장선출, 3년 후 차기 정이사 선임문제, 정상화 이후 조선대 운영 방향 등 조선대 발전의 분수령을 이룰 사안이므로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5회 현충일 추념식  
제55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광주공원 '우리 위한 영의 탑' 광장에서 열렸다.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호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무투표 당선' 단체장 업무공백 없애고 비리 퇴임 단체장 기탁금 내놓게 한다

## 행안부, 지방선거 제도 관련 문제점 개선 착수

정부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해 선거 환경이 바뀔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밝힌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은 거소투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단체장이 무투표 당선됐을 때 업무 공백을 없애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무투표 당선 단체장 업무 공백 없앤다 =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단독 출마해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자동 당선된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들은 선거일까지 업무를 보지 못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하면 권한이 정지돼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독출마로 투표 없이 당선된 단체

장은 권한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단체장이 후보자 등록을 했지만 경선탈락 등의 사유로 중도에 후보 사퇴할 경우에도 행정 공백을 없애고자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 거소투표 부정 감시 강화한다 = 이번 선거에서는 나주와 곡성, 충남 청양, 강원 횡성 등에서 일부 후보 운동원이 거소투표자의 표를 빼돌려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는 환자·노인과 함정(槓槓)에 있는 군인, 외딴섬 주민 등이 자택, 병원, 요양소 등 거주한 곳에서 투표하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주로 병원, 요양소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한 환자의 거소투표 신청 과정에서 일어났다. 부재자 신고를 할 때 시설장의 확인

도장만 있으면 된다는 맹점을 이용해 시설장이 특정 후보를 위해 허위 신고를 하고 표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병원과 요양시설 장기 거주자는 시설장 외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비리로 쫓겨난 단체장은 선거 기탁금도 몰아야 = 행안부는 비리 등으로 물러난 단체장에게 선거비용 보전액은 물론 후보자 등록 때 냈다가 당선 이후 돌려받은 기탁금도 다시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내놓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없이 일반 비리로 인해 중도사퇴했을 때에도 이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후보는 5000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000만원이다.

/연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당장 앞이 캄캄하다

# 市 보조금으로 해외 가족여행

## 감사원, 광주 문진위 부당사례 적발

광주시가 산하 기관의 국외여행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감사원에 공연에של체 개찰을 앞두고 아시아 각국에 홍보팀을 파견하면서 여행업체의 패키지상품을 이용하고, 가족이 함께 가는 등 애초의 국외여행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8년 말 '광주아시아공영예술펜' 추진을 위해 산하 기관인 광주문화예술포럼위원회(이하 문진위)에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6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문진위는 이에

산 중 2000만원을 배정,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1월3일까지 중국·일본·우즈베키스탄·인도 등 4개 국에 모두 12명의 홍보팀을 파견했다.

그러나 행사총감독이 홍보팀을 임의로 정하는 과정에서 자매를 한 팀에 배정하거나 미성년자를 선정한 후 가족 3명이 동반여행에 나섰으며, 여행업체의 패키지 관광상품을 이용해 공연홍보라는 기회 의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이 과정에서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법률신문 광주지사장 초빙

당사는 올해로 창간 60주년이 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전문지로 매주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주지역 법원·검찰청과 변호사·법무사 등 법조계 및 일반독자에 대한 신문보급 및 판리를 담당할 지사장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10년 6월7일(월) ~ 18일(금)
- 제출서류: 이력서 (상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표시), 자기소개서 (A4 용지 2매 이상)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1 강남빌딩 14층 법률신문사 총무국
- 연락처: (02) 3472-0602~3
- e-mail: best@lawtimes.co.kr

###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공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는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0. 5. 31.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대상인원  
○ 도시계획시설

구분	시도면적	위치	면적(㎡)	최소	비고
신설	주거지역	근로동 7800㎡ (매곡(근로동) 제2)	6,600	6,600	마세근로동내내공영예술포럼

2. 열람장소: ● 열람장소: 서구청 도시개발과 ☎ 062)360-7464

3. 열람기간: ● 열람기간: 2010. 6. 4 ~ 2010. 6. 17

###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 **첨단지구**  
상가 임대 :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권장업종 :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지역 변화가이며 1층에 옷매장들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학원, 사무실용으로 적합함  
450평(조립,제조 회사 가능) 시설 관리비 없음
-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 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 **첨단지역** : 토지, 모텔부지, 상가 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역**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홀, 레스토랑(다수보유)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회사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 엘도라도 연륙교 개통

“특급 펜션부지”

- 위치: - 신안군 중도 '엘도라도' 정문 2차선 포장도로 집 우편해수욕장 진입로에 위치한 모양 좋은 평평한 소나무밭
- 용도: 특급 펜션부지 (사계절 관광객 운영가능)
- 평수: 1.123㎡(계획관리지역)
- 매매가: 1억 3천만원

- 위치: - 신안군 중도 '엘도라도' 부근 2차선 포장도로 집 모양 좋은 평평한 곳에 위치 전면이 바닷가 앞, 전망 최상
- 용도: 특급 펜션부지 (사계절 관광객 운영가능)
- 평수: 1.561㎡(분할가능)
- 매매가: 1억 7천만원

☎ 010-9005-2223  
복돼지 공인중개사사무소

### 효성공인중개사

011-602-4207  
0521-6024 (FAX) 521-6026

**공장 매매**

- 하남공단 4차선 9번로변
- 대지 4,959㎡(1,500평)
- 건물 2,176㎡(658평)
- 호이스트 5t, 10t (총고9m)
- 매매가 22억 5천만

**공장 임대**

- 평동공단 2번로(신축)
- 공장 760㎡(230평)
- 공장 430㎡(130평)
- 임대료 평당 2만원
- 총고 8~9m 호이스트 설치

**물류창고 임대**

- 하남공단 8번로
- 건물 1,510㎡(475평)
- 임대료 평당 1만7천원
- 총고 높이 7m
- 현 대로변 위치 최고

### 인생열쇠

☎ 062-383-8982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고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광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립니다.

☎ 직통: (062) 227-9600 • FAX: 227-9500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구분: 구적, 운전, 모의, 초빙, 영입, 모의, 사임, 매입, 부흥, 매매, 임대, 전세, 분양

☎ 광주은행: 001-107-229160 • 농협: 617-01-108334  
\*매곡주(주)광주일보사

### 오늘의 퀴즈

영화관람권을 드립니다.  
광주일보에 애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영화표 2장씩을 드립니다. 퀴즈의 정답은 광주일보 광고면에 있습니다.

문제) 제주도가 더 가까워지는 쾌속선 여행 '오렌지호' 첫 출항일은 언제일까요?

① 7월1일                      ② 7월2일  
③ 7월3일                      ④ 7월4일

매주(월-토) 발행되는 신문광고에서 힌트를 얻어 정답을 표기한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연락처 기재)

(주소)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사 광고 마케팅팀 퀴즈 담당자 앞 062)223-0553